

학령기 학생을 위한 연주수행능력 평가도구의 개발

정재은* · 강선영**

본 연구는 전국에 걸친 학령기의 학생들의 음악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과정 중 연주수행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한 부분으로써, 연주수행능력기준표의 개발과정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선행검사도구 및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연주기준 및 그 성취기준은 어떻게 제시되어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연주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연주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중요한 요소를 정리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주수행능력 기준 표를 개발하였다.

※ 주제어 : 음악교육, 음악교육평가, 연주능력평가, 성취기준, 평가기준

차 례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I. 연주수행능력 평가도구의 개발과정
 -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2. 연주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작성
- III. 연주수행능력검사
- IV. 결 론
- 참고문헌

* 서원대학교

** 강남중학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박사과정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음악교육에서의 평가는 '음악의 가치나 수준을 일정한 근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권덕원 외, 2005).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주체가 가진 음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에 따라서 목표와 과정 이에 따른 평가의 방법이 달라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여 왔으며,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평가주체는 평가의 대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음악적 지식을 강조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평가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음악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평가는 주로 학생들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려 순위를 매기고 당락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음악 평가는 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이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또한 그 결과를 학생, 교사,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 당사자들의 앞으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 즉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음악 학습 성취 정도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에 음악 평가의 의미가 놓이게 된다.

음악 평가의 내용은 음악 수업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음악 수업의 다양한 목표와 내용, 방법에 따라 평가의 항목과 기준, 지침들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 음악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실행되며, 따라서 수업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음악 평가의 내용도 교육과정과 유리될 수는 없는 입장에 있다. 학교 음악 평가의 내용은 수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국가 교육과정과의 일관성, 타당성 있는 평가 항목과 기준, 그리고 평가 지침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의 목적과 내용들을 다양한 유형의 평가도구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음악 평가는 전통적으로 실기평가나 실기시험이라는 도구가 많이 쓰여 왔다.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활동을 선다형이나 단답형 같

은 유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최근에는 수행평가라는 또 다른 형태의 평가유형으로 대체되게 되었는데, 기존의 실기평가뿐만 아니라 서술이나 논술형, 구술, 토론, 면접, 관찰, 자기보고, 동료평가, 연구보고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의 유형들이 소개되고 실제로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평가뿐만 아닌 비공식적 평가가도 시행되고, 항상 피평가자의 위치에 있었던 학생들도 평가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 평가의 유형들이 도입되었다.

이런 다양한 평가의 유형들은 평가의 목적과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각 학교 음악 수업의 환경과 학습자의 수준, 교사의 교육 철학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분명한 평가 척도와 지침(rubric)들이 존재하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본 연구는 “한국 초·중등 학생의 음악수행능력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2007년)”수행의 한 부분으로써 연주수행능력 검사도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 연구는 중등 학생의 음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개발하고, 개발된 검사의 전국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크게 <음악인지능력검사>와 <음악연주능력검사>의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음악연주능력검사>에 관한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주능력의 범위를 결정하고, 각각의 범주의 측정과 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객관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채점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국 16개 광역교육청 단위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전국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음악연주능력검사>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하며, 이를 위하여 첫째, 연주평가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 성취기준 그리고 평가시행 방법 등의 내용을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 및 요소들을 정리해 보고, 실제 연주평가를 위해 작성된 루브릭의 예를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연주능력검사를 위해 개발된 수행능력기준표와 채점기준표를 제시하려 한다.

Ⅱ. 연주수행능력 평가도구의 개발과정

명확한 평가기준의 확립은 평가자와 평가대상의 대화수단이기도 하며, 또한 대상 자신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음악적 성장을 도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주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연주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이 각각의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특성은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연주평가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우선 연주수행능력검사의 평가기준, 성취기준 및 평가유형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 예를 들면 영국의 ABRSM(The 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s of Music), 미국의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와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 for Music Education),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제시된 자료들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연주수행능력검사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성취기준 및 평가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보려 한다.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1) The 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s of Music (ABRSM)

The 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s of Music(The 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s of Music 이하 ABRSM)은 1889년 설립되어 100년 넘게 음악교육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음악에 대해 전 세계 90개국 이상의 60만개의 시험(exam)을 수행하는 단체로, ABRSM이 주관하는 시험은 영국 내 4개의 음악학교, 즉 Royal Academy of Music, Royal College of Music, Royal Northern College of music, Royal Scottish

Academy of Music and Drama와 관련되어있다. 또한 각 수준별로 연주자들(악기 또는 성악)의 학습 목표와 과정을 측정함으로써 이들을 격려하고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5개 이상의 악기, 제즈, 앙상블, 성악 등의 시험이 있고, 모든 연주 평가를 받는 응시자들은 음악이론(theory test), 청각(aural test), 실용 음악성(practical musicianship)에 통과(pass)하도록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음악이론, 청각 등의 기본 시험 이외에 해마다 모든 실기(악기와 성악) 시험의 내용(시험 악곡)과 수준이 업데이트되며 약간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독주 악기나 독창 이외에도 앙상블(그룹 연주) 연주의 한 파트로써 음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Music medals라는 시험이 2004년 영국에서 소개되어 가장 최근 추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음악에 관한 시험들의 범위를 넓혀갈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ABRSM의 기본적인 시험인 실기(the practical exam)는 말 그대로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청각(aural) 및 음악이론(theory) 시험 또한 직접 응시하지 않고는 시험 문제와 결과를 외부로 알리지 않는 규정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체를 완벽히 알기는 어려우나 각 시험들의 실라버스와 시험 악곡들, 그리고 평가 기준(assessment criteria)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연구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는 실기 시험(the practical exam)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기 시험은 35개 이상의 악기들과 성악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암기로 연주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인문계 학교의 음악 학습 보다는 예술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기 시험이나 대학 입시의 실기 시험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실기 시험은 학생들이 연주에 대해 정확성, 기술적인 유창성, 그리고 음악적인 자각에 대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그리고 이해(understanding)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시자는 3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평가 받는데, 첫째, 연주하는 능력의 정확성(accuracy), 연속성(continuity), 그리고 유창성(flucy), 둘째, 조성 인식(tonal awareness), 셋째, 음악적 성격(musical character)과 연주 감각(a sense of performance)의

수준에 따라 평가된다.

본 연구의 '연주능력점사'와 ABRSM의 실기시험은 평가의 목적과 수준은 다르지만 위에 언급한 3가지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2)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미국에서는 3번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음악 평가가, 1971-1972년, 1978-1979 그리고 1997년에 이루어졌는데, 국가적인 개념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성취를 가늠해 보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둔 NAEP가 바로 그것이다 (Tsai, 2001).

NAEP music assessment framework에서는 음악 평가는 음악적 내용(content)과 과정(process)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NAGB, 1994). 음악적 내용은 1) 음악에 관한 지식과 이해, 2) 지각에 의한 기술 그리고 지적인/상호연관적인 기술을 포함하며, 과정은 1) 창작하기(Creating), 2) 연주하기(Performing), 그리고 3) 반응하기(Responding)를 포함한다. 1) 창작하기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으로는 즉흥연주하기, 작곡 또는 편곡하기가 있으며 2) 연주하기에는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악보 읽고 쓰기가, 그리고 3) 반응하기에는 듣기, 연주평가하기, 다른 예술과의 관계 이해하기, 역사, 문화와의 연관성 이해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의 범주와 내용을 살펴보면 NAEP 음악평가 시험의 평가문항은 총 70 문항이다. 문항 구성에 있어서 전체 문항을 하나의 '블록(block)'으로 나누고 하나의 '블록'에는 8개에서 16개 문항이 있다.

블록은 총 7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4개의 '블록'은 학생들의 '반응(responding)'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는 학생들의 '연주(performing)' 및 '창작(creating)'능력을 평가하는 블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반응' 능력이란 음악을 듣고 음악요소를 변별하거나 구별하기,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기 그리고 연주를 평가하기 등의 능력을 뜻한다. '연주'

능력이란 가창 및 기악연주를 뜻하며 '창작'능력이란 즉흥연주 및 작곡을 뜻한다.

NAEP의 구성을 살펴보면 NAEP는 일반적으로 6-7시간 정도가 걸리는 검사 도구이므로, 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NAEP는 설문군(blocks), 다시 말하면 시간에 맞추어져 있는 구성안에서 개별적인 단위로 실시되는 문항들의 그룹으로 나뉜다. 전형적인 검사도구 책자는 배경에 관한 질문 2문항(각5분), 동기에 관한 질문 1문항(3분), 그리고 2개의 검사내용의 블록(각 25분)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각 학생은 대략 63분에 걸쳐서 검사를 치르게 된다(Schneider, 2005).

평가내용은 연주 및 창작영역에서의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평가수행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창연주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합창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시창하기, 즉흥연주선율을 노래 부르기 등의 수행방법이, 기악연주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악보 보지 않고 연주하기, 악구를 듣고 연주하기, 합주작품의 부분을 연주하기 등의 수행방법이, 그리고 즉흥연주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음악을 배경으로 즉흥연주하기, 리듬반주와 화성반주를 넣어 즉흥연주하기, 그리고 변주하여 연주하기 등의 수행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창, 기악, 즉흥연주를 포함하는 연주 및 창작영역의 일반적인 평가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처음의 예시문항을 포함해서 연주 및 창작 설문군에는 지필답안은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다른 NAEP평가와는 다르게 연주부분은 학생들의 응답을 모은 오디오테이프를 전적으로 녹음하게 된다. 학생들은 노래하거나,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자피아노를 사용하여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의 과제의 성취를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점기준과 각각의 기준에 따른 예시와 검사자들을 위한 지침서가 개발되었다.

앞에서 제시된 첫 번째 블록 "Rock Improvisation and Evaluation"의 검사자들을 위한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리 훈련되어진 모든 검사자들은 제시되어진 동일한 지침서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우선 검사자는 즉흥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또한 검사가 미디 키보드를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악기와 친숙해지도록 연습시간을 정확히 30초 준다. 그리고 나면 즉흥연주하기 전에 주의할 점을 알려주며 첫 번째 즉흥연주 예시를 들려준다. 첫 번째 즉흥연주 예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이어서 두 번째 즉흥연주 예시를 들려준다. 다시 한 번 즉흥연주 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며 제시된 배경음악을 들려준다. 배경음악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즉흥연주를 시작한다. 학생들의 연주가 끝난 후 30초 동안 즉흥연주가락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학생들이 가락을 두 번 똑같이 연주하도록 하면서 마친다. 이러한 과정은 구어체의 문장으로 지침서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채점기준을 위하여 채점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른 상세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평가의 내용으로는 음과 리듬 패턴의 사용, 곡의 일관성, 형식의 적합성, 독창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EP의 영역별 평가내용, 평가수행방법, 채점기준등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미국의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 for Music Education)

미국의 국가기준은 크게 9가지 항목(1)가창, 2) 기악, 3) 즉흥연주, 4) 작곡, 5) 읽고 쓰기, 6) 분석 및 서술, 7) 평가, 8) 다른 과목과의 상호연관성 이해, 9) 배경지식관련 음악의 이해)에 대한 평가기준과 성취기준이 PreK-12학년에 걸쳐서 내용기준(content standards)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학생성취기준(student performance standards)—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achievement standards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고 학습사회기준(opportunity-to-learn standards)또한 제시하고 있다(권덕원 외, 2005).

학생성취기준은 예가되는 평가 전략과 기대되는 학생의 반응 다시 말하면,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학생의 반응은 초급(basic), 중급(proficient), 그리고 고급(advanced)단계로 나뉘어 서술되고 있다. 초급단계에서는 뚜렷한 발달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국가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을 의미한다. 중급단계는 국가기준에 의거한,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어지는 기대수준을 의미한다. 고급단계에서는 국가기준에서 요구되어지는 것 이상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 중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가창, (2)기악, (3)즉흥연주에 있어서의 학생성취기준에 관하여 고찰해 보려한다.

가창에서의 내용기준과 이에 따른 성취수준을 나열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내용기준과 성취수준(가창)

내용기준	성취수준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노래하기	알맞은 음색, 발음, 자세와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음정과 리듬으로 노래 부른다.
	알맞은 셈여림과 프레이징으로 노래를 표현력 있게 부른다.
	다양한 문화의 장르와 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노래를 외워서 부른다.
	오스티나토, 파트너 노래, 그리고 돌림노래를 부른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적합한 셈여림을 가지고 다양한 음색을 가진 모둠에서 노래한다.

또한 각각의 성취수준에 적합한 평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알맞은 음색, 발음, 자세와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음정과 리듬으로 노래 부른다.>의 평가 전략을 <반주 없이 “America” 부름. 키는 학생이 편한 키로 부르게 함.>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의 반응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취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창에서의 중요한 요소—음정, 리듬, 목소리 및 발음, 자세—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3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기악에서는 중요한 요소—음정 및 인토네이션, 리듬, 음색, 자세, 운지법 및 숨 조절, 강약—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흥연주에서도 역시 중요한 요소—즉각 반응, 빠르기, 리듬, 길이, 같은 패턴의 사용—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영역별의 내용기준과 이에 따른 성취수준, 그리고 성취수준에서 제시되어지는 영역별의 중요한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우리나라 교육과정

우리나라 음악 평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정책과제로 수행되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평가의 목적과 방법들이 교육과정 안에 명시되기도 하였으며, 교육과정에 맞는 바람직한 평가 기준이나 도구에 관한 예시들이 연구되어 제시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음악과의 활동에 관한 평가, 즉 수행평가의 척도안과 예시에 대한 연구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1999년 고등학교 음악과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 2000년 중학교 음악과에 대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연구, 2001년 초등학교 음악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들의 결과물들이 차례로 산출되었다. 앞서 1997년에는 당시 교육부로부터 과제를 위탁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개발 연구'의 결과물로서 음악교과의 절대평가 기준을 제시도 하였다.

이런 음악 평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교의 음악교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으며, 그 외 상당수에 이르는 교육대학원의 석사 학위 논문들과 교사들의 현장연구들도 당연히 학교 음악교과에서 실행되거나 실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연구들이다. 그래서 선다형이나 단답형 유형의 기존의 지필평가나, 음악능력을 진단하는 표준화점사와 같은 것보다는 상당수의 연구들이 학교 음악교과에서 이용할 만한 가창과 기악 같은 음악활동을 평가하는 실기 평가 내지는 수행평가의 기준과 척도,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1년 연구 산출물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음악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에서는 국

가 교육과정의 활동 영역으로 나누고 그 내용을 반영시킨 성취기준과 이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에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따라 다양한 예시평가도구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의 가창 영역 예시평가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표 2>의 성취기준은 교육과정과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고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활동의 예도 제시해주고 있다.

초등에서는 위와 같은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작성한 후 예시평가도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이를 활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종달새의 하루’를 노래할 때, 평가지 2개가 준비된다. 1개의 평가지에는 학생들이 평가자가 되어 자신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그리고 동료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관점을 서술해주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평가지는 교사가 평가자로서 학생의 부르는 노래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상, 중, 하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등급의 평가요소로는 발성, 정확성, 음악적 표현, 조화, 태도, 평가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음악과 4학년 가창 성취기준

교육과정		성취기준
영역	내용	
1. 가창 (다양한 악곡을 노래 부른다.)	101. 바른 자세, 호흡으로 부른다.	1-1. 4학년 수준의 다양한 악곡 구성요소를 이해하여 노래 부를 수 있다. 1-2. 지휘에 맞추어 독창, 제창, 돌림 노래, 부분 2부 합창을 한다. 1-3. 노래를 듣고 평할 수 있다.
	102. 악곡을 듣고 따라 부른다.	
	103. 리듬과 가락의 흐름을 이해하여 보고 부른다.	
	104. 악곡의 특징을 살려 부른다.	
	105. 간단한 노래를 외어 부른다.	
	106. 지휘에 맞추어 독창, 제창, 돌림노래, 부분2부합창을 한다.	
	107. 노래를 듣고 평한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0년 연구물에서 성취기준, 평가기준, 그리고 예시평가도구를 보여주고 있다. 국

가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에 따라 성취기준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평가 기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가요소 또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발성, 가락, 음악적 표현, 태도, 균형과 조화, 평하기의 6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평하기 항목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하여 주어진 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진술하는 지에 대한 적합성, 진술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리성, 진지한 자세로 성의 있게 평하는가에 대한 태도로 더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만들었다.

기악 평가기준으로는 주법, 정확성, 음악적 표현, 조화, 태도 등이 초, 중등에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즉흥연주의 평가 기준과 지침은 창작 영역 안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창작 영역 안에서는 음악의 요소 이해, 즉흥성, 창의성, 태도의 4가지 항목을 평가요소로 두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국가기준과 마찬가지로 영역별 평가의 내용, 이에 따른 성취수준의 제시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연주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작성

앞에서 살펴본 ABRSM, NAEP, 미국의 국가기준,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나타난 평가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BRSM에서는 1) 연주하는 능력의 정확성, 연속성, 유창성, 2) 조성인식, 그리고 3) 음악적 성격과 연주 감각의 수준이 평가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연주에서의 평가기준을 기술적인 부분과 표현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인다. NAEP에서는 평가의 기준에서 음과 리듬 패턴의 사용, 곡의 일관성, 형식의 적합성, 독창성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채점기준을 4단계로 제시하고 있었다. 미국의 국가기준에서는 음정, 리듬, 목소리 및 발음, 자세 등의 가창평가의 기준과, 음정 및 인토네이션, 리듬, 음색, 자세, 운지법 및 숨 조절, 강약 등의 기악평가의 기준, 그리고 즉각 반응, 빠르기, 리듬, 길이, 같은 패턴의 사용 등의 평가기준이 보였으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가창, 기악, 즉흥연

주에서의 평가기준을 이와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실제 이 자료만으로는 연주평가의 기준을 확립하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가창, 기악, 및 즉흥연주평가로 분류하여 이에 속할 수 있는 평가내용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준의 작성방법을 고찰해 보고, 실제 평가현장에서의 시행방법에 관하여 논해보려 한다.

1) 가창, 기악 및 즉흥연주평가의 평가내용

가창과 기악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요소들을 Brophy(2000)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능한 적성에 관한 것으로써 일정 박이나 모방 또는 에코가 이에 속할 수 있다.

둘째는, 기본적인 청각변별과 관련된 요소들로써 높고/낮음, 크고/여림, 빠르고/느림, 멈춤/시작, 길고/짧음, 시작/끝, 그리고 비슷하고/다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는, 테크닉과 관련된 요소들로써 숨 조절/유지(악기/성악 연주 시 숨을 조절하고 지탱하는 능력), 목소리 배치(두성/홍성), 자세(음악연주 시 몸의 적절한 위치), 턱선, 손의 위치(악기연주 시 손의 위치), 악기위치(리코더 등의 악기 연주 시 악기의 위치), 운지법(관악기나 건반악기 연주 시 손가락의 특정 위치에 따른 정확한 음정과 패턴 연출), 기민함(악기 연주 시의 운지법과 악기에서의 손의 위치의 빠름이나 유창함으로 노래할 때의 빠르고 멜리스마틱한 패시지의 빠름과 유창함도 포함)등이 있다.

넷째는, 음악의 질로써 음색, 음질, 셈여림, 프레이징, 해석 등이 있다.

다섯 번째는 음악능력발달과 관련된 요소로써, 음고 정확성, 리듬 정확성, 독보(시창을 포함한), 목소리 음역, 목소리 조절, 기민함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적 기능의 발달과 관련된 요소로써, 구체적인 독주곡 혹은 독창곡, 오스티나토, 론도/캐논, 단순한 반주, 음계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즉흥연주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크게 가락, 리듬, 구조, 이론,

미학적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락적인 면에서는, 음역, 가락의 형태(순차 또는 도약), 끝맺는 음, 가락동기의 반복, 가락동기의 발전, 그리고 음계가 주요 요소로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리듬적인 면에서는 박의 분할(음표 길이와 쉼표), 리듬패턴, 리듬동기의 반복, 그리고 리듬동기의 발전, 그리고 구조적인 면에서는 형식(특히, 대조적인 부분의 사용), 프레이즈, 주제와 응답, 종지의 느낌 등이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음계 혹은 음정의 조합, 화성의 변화, 그리고 기보법이 요소로 포함되어 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미학적인 관점에서는 우선 '감상자에게 호소력을 지니는가', '어떤 감정적 효과가 있는가', '전체적인 영향은 어떠한가'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외에 셈여림의 사용,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움직임(자세 및 공간에 대한 감각)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평가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기준이 필요하리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실제 즉흥연주의 평가를 위해 작성된 루브릭의 예를 제시해 보았다.

C음을 기준으로 하는 오음음계와 독창적인 리듬을 사용하며, 으뜸음 종지를 사용하는 것이 조건으로 제시된 즉흥연주 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루브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단계별 구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대부분 일정박의 결여 - 불안한 템포 - 채를 번갈아 사용하지 않음 - 으뜸음으로 종지하지 않음 - 독창적인 리듬이 아님	- 일정박/템포가 때때로 불안정 - 채의 사용이 일관적이지 않음 - 으뜸음으로 종지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음 - 가끔 독창적 리듬 보임	- 일정박/템포가 쑥 유지됨 - 채의 올바른 사용 - 으뜸음으로 종지 - 독창적 리듬과 다양한 길이의 사용	- 테크닉이 출중함 (예를 들어 3개의 mallet을 사용) - 으뜸음으로 종지 - 더 긴 음표와 대조되는 복합적인 박의 분할을 포함한 리듬사용으로 끝남.

위에 제시된 루브릭에서 제시된 조건인 독창적, 리듬, 으뜸음 종지를 포함하여, 박자, 템포, 리듬의 독창성, 채의 활용, 으뜸음 종지의 수준을 기준으로 단계가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에 제시하는 <표4>는 준거가 되는 항목별로 점수를 나누고 이에 따른 설명을 덧붙인 준거별 구성의 예이다.

<표 4> 준거별 구성

준거	점수	설명
일정박	1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
	2	불안하다.
	3	계속 유지한다.
템포	1	계속 불안하다.
	2	일관성이 없다.
	3	계속 유지한다.
리듬	1	독창적이지 않다.
	2	가끔 독창적이다.
	3	독창적이고 다양한 길이의 음표를 사용한다.
	4	더 긴 음표를 대조시키는 복합적인 박의 분할을 사용한다.
으뜸음 종지	1	있다.
	2	없다.(2단계로)
채의 활용기술	1	교체하지 못한다.
	2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교체한다.
	3	채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채의 활용이 뛰어나다.(예를 들어 3개의 채를 사용)

실제 루브릭의 개발에 있어서는 단계별 구성과 준거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가창과 즉흥기악영역에서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주요요소를 나열한 연주수행능력기준표를 만들고, 이에 따른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였다.

2) 1차 연주수행능력기준표

연주항목을 각각 기술적인 부분과 표현적인 부분으로 분류하여 세부항목을 나열하였다. 먼저 크게 기술적인 부분과 표현적인 부분으로 분류한 후, 평가의 대상요소가 될 수 있는 세부 항목들을 나열하였다. 평가 가능한 세부항목들을 나열 한 후 그 중요성을 매우 중요함(○),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의 세 가지로 평가하였다.

<표 5>는 가창에서의 채점기준표 초안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자세, 기민함, 음고 정확성, 리듬 정확성, 목소리 조절, 일정한 빠르기, 아티클레이션이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음질, 악곡의 흐름과 관련된 썸머립의 표현, 프레이징, 인토네이션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선정되었다.

<표 5> 채점기준표 초안(가창)

분류	세부항목	중요성
기술적인 부분 (technic)	일정박	×
	숨 조절/유지; 악기/성악 연주 시 숨을 조절하고 지탱하는 능력	△
	목소리 배치; 두성/흉성	×
	자세; 음악연주 시 몸의 적절한 위치	○
	딕션, 발음(가사전달)	△
	기민함	○
	음고 정확성	○
	리듬 정확성	○
	목소리 음역	×
	목소리 조절	○
	일정한 빠르기	○
	아티클레이션: 레가토, 스타카토	○
	음역	×
	목도 열림, 턱의 긴장, 공명된 소리, 횡격막 받쳐줌	×
표현적인 부분 (quality)	음색	○
	음질	<음질>로 통일
	악곡의 흐름과 관련된 썸머립의 표현	○
	프레이징	○
	해석	×
	인토네이션	○

<표 6>은 기악에서의 채점기준표 초안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숨조절, 자세, 손의 위치, 악기 위치, 운지법, 기민함, 음고정확성, 리듬 정확성, 일정한 빠르기, 텅잉, 아티큘레이션이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음색, 악곡의 흐름과 관계된 셈여림, 프레이징, 인토네이션 등이 평가의 주된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표 6> 채점기준표 초안(기악)

분류	세부항목	중요성
기술적인 부분 (technic)	일정박	×
	숨 조절/유지; 악기/성악 연주 시 숨을 조절하고 지탱하는 능력	○
	자세; 음악연주 시 몸의 적절한 위치, 머리/어깨/입/턱의 위치	○
	손의 위치; 악기연주 시 손의 위치	○
	악기 위치; 리코더 등의 악기 연주 시 악기의 위치	○
	fingering(운지법)	○
	dexterity(기민함)	○
	음고 정확성	○
	리듬 정확성	○
	일정한 빠르기	○
	텅잉	○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스타카토	○
	음역(register)	△
표현적인 부분 (quality)	음색	○ 음질로 통일
	음질, 맑은 소리	
	악곡의 흐름과 관계된 셈여림	○
	프레이징	○
	해석	×
	인토네이션	○

<표 7>은 즉흥연주에서의 채점기준표 초안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한 종지감, 동기의 반복 및 발전(멜로디), 리듬 패턴의 유무, 동기의 반복 및 발전, 종지감의 유무(리듬), 형식, 프레이즈, 선행구/후행구, 종지의 감각, 연주의 완성도(구조),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영향, 셈여림의 효과적/음악적 사용(주관적인 질), 자연스럽게 음악에 조화되는 움직임(움직임)등이 중요한 요소로 선정되었다.

<표 7> 채점기준표 초안(즉흥연주)

분류	요소	세부항목	중요성
기술적인 부분 (technic)	멜로디	음역	×
		타입(순차/도약)	×
		확실한 종지감	○
		동기의 반복	○
		동기의 발전	○
		스케일	×
	리듬	박의 분할/음표 길이와 쉼표	×
		리듬 패턴의 유무	○
		동기의 반복	○
		동기의 발전	○
		독창성	△
		종지감의 유무	○
	구조	형식(대조구의 사용) (선행구를 제시한 경우)	○
		프레이즈	○
		선행구/후행구	○
		종지의 감각	○
		연주의 완성도	○
표현적인 부분 (quality)	주관적인 질	길이(악곡의 길이)	×
		감상자에게 어필하는가	×
		감정적인 효과	×
		전체적인 영향	○
	움직임	셈여림의 효과적/음악적 사용	○
		아티클레이션: 레가토와 스타카토	×
		자세	×
		공간에 대한 감각	×
		자연스럽게 음악에 조화되는 움직임	○
		적합성	×
		모방과 응답	×
		응답 부분의 다양성	△

3) 2차 연주능력수행기준표

1차 연주능력수행기준표의 작성을 통하여 가창과 기악의 평가요소들이 유사점이 많았으며, 또한 최대한 효율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평가를 크게 가창과 즉흥기악의 두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1차 연주능력수행기준표를 기초로 하여 2차 연주능력수행기준표를 개발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 <표 8>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8> 연주능력수행기준표

차 례	가창	즉흥기악연주
1	숨조절(자세포함)	가락의 종지감(프레이즈)
2	발음	선행구와의 조화의 정도
3	목소리조절(음식, 기민함, 음질)	독창성(프레이즈 안에서의)
4	음고정확성(인토네이션)	연주자세(손의 위치 등)
5	리듬정확성	기민함
6	곡의 일정한 빠르기	음질(맑은소리 등)
7	아티큘레이션, 셈여림	
8	프레이징	

연주수행능력기준표를 개발할 때 첫째, 초등과 중등학생들에게 모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요소의 포함, 둘째, 학생들의 연주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의 선정, 그리고 개별적 음악요소들과 전체 음악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가창에서는 숨 조절, 발음, 목소리조절, 음고정확성, 리듬정확성, 곡의 일정한 빠르기,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을 즉흥기악연주에서는 가락의 종지감, 선행구와의 조화의 정도, 독창성, 연주자세, 기민함, 음질 등을 평가의 주요요소로 선정하였다.

Ⅲ. 연주수행능력검사

<연주수행능력검사>의 대상은 전국 16개 광역교육청 단위로 선발된 학생으로 초등 3학년-고등 1학년까지 각 학년 당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으로 하였다. 검사는 가창과 즉흥기악연주 모두 1인당 약 1분으로 예상하였으며, 검사 실시 전, 음악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2인 1조로 진행내용을 숙지시켰다. 그리고 일관적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훈련된 검사자들에게 진행요령이 적힌 지침서와 검사에 필요한 악기 및 녹음기자재가 적힌 체크리스트를 일괄적으로 나눠주었으며, 지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주수행능력검사> 진행 요령

1. 연주능력검사를 받지 않는 학생들은 교실(또는 음악실)에 남아 있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시간이므로 다른 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학생들끼리 돌발 행동을 하지 않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2. 연주능력검사는 녹화(또는 녹음)하므로 학생들이 녹화(또는 녹음)하는데 어색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3. 다른 학생이 녹화(또는 녹음)할 때 잡음이 섞이거나 어색해 하지 않도록 다른 학생들을 통제합니다.
4. 미리 녹화(또는 녹음)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합니다. 조명, 비디오와 악기, 소음 등을 점검합니다. 악기 및 비디오 등의 기자재 등은 연구원들이 직접 가져갑니다.
5. 가창 검사 시에 학생들이 음역을 너무 낮거나 높게 잡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6. 즉흥기악연주 시에는 선행구는 진행자가 연주하고 후행구는 학생이 연주합니다.
7. 먼저 연주가 끝난 학생들은 조용히 퇴실하고, 기다리던 다음 학생들이 조용히 입장하여 연주합니다.

<연주수행능력검사>는 가창과 즉흥기악연주의 2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실기 검사로써, 가창능력검사를 위해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따라 부를 수 있고, 앞에서 선정되어진 평가의 요소들을 볼 수 있는 노래인 '웅달샘'을 선정하였다. 검사 시에는 샘여림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악보를 보여주 고, 반주 없이 자유롭게 '웅달샘'을 부르도록 하였다.

또한 즉흥기악능력검사를 위해 모두 4마디로 이루어진 악절을 2문항 개 발하였으며, 검사자가 먼저 글로켄슈필(실로폰과 비슷한 악기)로 2마디의 선행구를 주면 후행구 2마디를 학생들이 창작하여 글로켄슈필로 연주하 고, 다시 2마디의 선행구를 주면, 후행구 2마디를 학생들이 창작하여 연주 하도록 하였다. 총 8마디의 검사 내용 중 학생들은 각 2마디씩 총 4마디 를 창작연주하게 되며, 두 번째 문항은 첫 번째 문항보다는 난이도를 높 여서 만들었다.

공정하고 일관적인 채점을 위하여, 작성되어진 연주능력수행기준표를 바탕으로 하여 연주능력평가 루브릭(rubrics)을 만들었으며 그 내용은 다 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연주평가 루브릭

영역		상	중	하
가 창	숨조절 (자세포함)	여유 있게 숨을 조 절하며 노래한다.	비교적 숨을 조절 하며 노래한다.	숨조절이 부자연 스럽다.
	발음	발음이 전반적으 로 명확하다.	발음이 비교적 명 확하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
	목소리조절 (음색, 음질)	맑은 목소리로 노 래한다.	자연스러운 목소 리로 노래한다.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로 노래한다.
	음고정확성 (인토네이션)	음높이가 전체적 으로 정확하다	전체적인 율곡은 맞지만, 음높이가 다소 부정확하다. (인토네이션 포함)	음높이가 전체적 으로 부정확하다.
	리듬정확성	리듬이 매우 정확 하다.	리듬이 비교적 정 확하다.	리듬이 정확하지 않다.
	곡의 일정한 빠르기	악곡이 나타내는 빠르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악곡이 나타내는 빠르기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유지 한다.	악곡이 나타내는 빠르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 한다.

영역		상	중	하
	아티클레이션, 섹여림	악곡이 나타내는 아티클레이션과 섹여림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악곡이 나타내는 아티클레이션과 섹여림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한다.	악곡이 나타내는 아티클레이션과 섹여림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프레이징	프레이징의 표현이 자연스럽다	프레이징의 표현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	프레이징의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즉흥기악연주	가락의종지감(프레이즈)	가락의 끝나는 느낌이 자연스럽다.	가락의 끝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	가락의 끝나는 느낌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선행구와의 조화의 정도	선행구와 매우 잘 어울리게 후행구를 연주(창작)한다.	선행구와 비교적 어울리게 후행구를 연주(창작)한다.	선행구와 어울리지 않는 후행구를 연주(창작)한다.
	독창성(프레이즈 안에서의)	즉흥표현이 선행구와 연관성 있게 매우 독창적이다.	즉흥표현이 선행구와 연관성 있게 어느 정도 독창적이다.	즉흥표현이 독창적이지 않다.
	아티클레이션, 섹여림(검사자가 선행제시)	즉흥표현의 아티클레이션과 섹여림의 표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흥표현의 아티클레이션과 섹여림의 표현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	즉흥표현의 아티클레이션과 섹여림의 표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연주자세(손의 위치 등)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로 연주한다.	비교적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로 연주한다.	연주자세가 부자연스럽다.
	기민함	민첩하게 연주한다.	비교적 민첩하게 연주한다.	연주가 민첩하지 않다.
	음질(맑은 소리 등)	맑고 고운소리로 연주한다.	비교적 맑고 고운소리로 연주한다.	소리가 맑고 곱지 않다.

각 영역의 주요한 요소에 따라 상, 중, 하의 3단계로 평가의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평가자에 따라 주관적이기 쉬운 연주평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최종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객관적인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했으며, 이를 3단계로 나누어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최대한 객관적인 검사를 하기 위하여 피검사자들의 실제 연주는 모두 캠코더를 이용해 녹화되어야 하며 녹화된 자료를 분석하며 전문가 3인이 채점하게 된다. 또한 평가 도구의 신뢰성을 위하여 전문가간의 신뢰도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학교의 정규 음악 수업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적어도 한번쯤은 학습한 제재곡을 외우거나 혹은 악보를 보고 부르는 형태의 가창 시험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차례로 노래를 하고 교사는 이에 대해 평가를 한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가창을 평가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잘 하고 어떤 것이 부족하여 '수'가 아닌 '우'를 받았을까? 필자가 여태껏 가져왔던 의문이고, 아직도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이다.

학생들의 음악적 행동과 평가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사들은 먼저 평가하고자 하는 음악적 행동이나, 개념자체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되고 있는 평가 방법과 도구가 학생의 수준에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평가를 통해 학생의 음악적인 발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끊임없이 대두되는 가창을 포함한 연주 평가의 근거 있고 타당한 평가기준의 제시를 위하여 기준의 필요성, 연주평가의 실제적인 예의 제시, 연주평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 연주평가를 위한 루브릭의 예의 제시, 이를 바탕으로 한 연주평가 채점기준표의 개발까지의 과정을 다루어 보았다.

본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는, 첫째, 개발된 <연주수행능력평가>도구를 전국16개의 각 시도에 있는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 검증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연주수행능력>에 관한 표준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김준수(1999). 음악과 수행평가 현장 사례
- 김준수 외.(1999). 고등학교 음악 I 평가방법 개선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수자료
- 양종모, 이경언(1999). 음악과 수행평가 현장 정착 방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 : 고등학교 음악 I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중학교 음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음악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 현경실(2001). 음악과의 수행평가: 리코더를 중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제17권 1호. pp.71-9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 중등 음악과 수행평가 자료집
- Brohpy, S. Timothy(2000). *Assessing the Developing Child Musician: A Guide for General Music Teachers*. Chicago: GIA Publication.
- Lehman, P. R.(1999). *National Assessment of Arts Education: A First Look*. Music Educators Journal, 85(4), 34-37.
- MENC.(1994). *National Standards for Arts Education : What Every Young American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in the Arts*. Reston, VA : Author.
- _____.(1994). *Performance Standards for Music : Grades PreK-12*.
- _____.(1998). *The 1997 NAEP in Arts Education*. MEJ, 85(1), 34-36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1998). *The NAEP 1997 Arts Report Card*.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1994). *Arts Education Assessment*

Framework. Washington, DC: Author

Schneider, Christina(2005). *Measuring Student Achievement in the Future Based on Lessons form the Past: The NAEP Arts Assessment*. MEJ, Nov.

Tsai, Hui-Lau(2001). *Comparison of the NAEP Music Assessments Conducted in 1971-72, 1978-79 AND 1997*. Ann Arbor: Michigan State University.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 Rubric of Music Performance Test for Primary-Secondary Students in Korea

Jeong, Jae-Eun · Kang, Sun Young

This study is in a part of developing an assessing tool for establishing the music performance standards for Korean school-aged students.

In the initial phase of the study, theories on music performance standards were examined. Theories included National Standards for Music Education in the U.S. and National Music Curriculum in Korea as well as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Then, based on the theories examined, the main factor for assessing singing, playing, and improvising was mainly focused on.

Finally, the performance test was developed with rubrics for assessing the students.

Key Words : Performance standard, assessment, rubrics, NAEP, NSME

투고일: 3월 29일, 심사(수정): 5월 6일(5월 30일), 게재확정: 5월 30일